

## ■ 2026년도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 1차 심의(유형①)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 1차 심의 유형①
- 회의일시 : 2026년 4월 1일(수), 11:00~12: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태용, 선안나, 임태운, 정여울, 한영인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은 문학적 역량이 우수한 작가의 장편소설 창작을 집중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 특히 유형①은 장편소설 발간 이력이 없는 작가를 대상으로 창작동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트랙입니다. 그럼에도 지원된 작품 수가 총 195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작가들이 이 사업에 뜨거운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심의는 2차 심의에 올라갈 대상 작품을 선별하는 1차 심의로서, 총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개별적인 심의를 거친 뒤 한자리에 모여 2차 심의의 대상작이 될 21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1차 심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핀 것은 작품의 예술적 성취였습니다. 특히 작품의 주제와 의도 및 서사구조의 참신성과 기존 문학의 틀을 깬 새롭고 대범한 창조성을 발견하는데 특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동시에 플롯 운용의 안정성과 개성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문장력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작품의 수준은 고른 편이었으나 심사의 기준으로 삼은 새로운 창조성과 참신성을 드러낸 작품이 드물었다는 아쉬움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왜 이 소재와 주제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반드시 소설로 만들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적실한 답변을 던져주지 못하는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플롯의 운용을 둘러싼 아쉬움도 컸는데 이야기와 인물의 운동이 활달하지 못하고 장면과 장면을 평면적으로 이어 붙인 작품들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심사위원들의 눈을 사로잡은 작품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장의 운용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주제와 소재는 익숙하고 낮이 익었더라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의 존재가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페이지를 계속 넘겨 읽게 만들도록 플롯을 입체적으로 운용했습니다. 장편소설은 긴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의 매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를 온전히 믿고 갈 수 있는 문장과 플롯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거칠고 사나운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관심을 보내준 작가분들을 생각하면 21건이라는 1차 통과작의 수가 턱없이 적게 느껴집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소설적 탐구를 보여주었음에도 2차 심의에 오르지 못한 여러 작품들을 생각하면 그 안타까움이 더 큼니다. 하지만 작가분들의 장편소설 창작 동력을 고취하기 위한 이 사업은 이제 첫발을 떴을 뿐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점에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심의위원 일동

## ■ 2026년도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 1차 심의(유형②-A)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 1차 심의 유형②-A
- 회의일시 : 2026년 4월 1일(수), 15:00~16: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박상민(필명 : 이산화), 손홍규, 심진경, 유영진, 조정란

2026년도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사업의 목적은 뛰어난 문학적 역량을 지닌 작가의 장편소설 창작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장편소설 창작 기반을 확고히 하고, 나아가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업 유형②의 경우 장편소설을 최소 1편 이상 발간한 이력을 보유한 작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만큼, 이미 장편소설 창작 경험이 있는 작가가 이후로도 작품활동을 이어 나가며 문학적 성과를 계속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된 취지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이번 사업은 작가가 집필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고민을 덜고 창작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은 물론 창작 과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1차 심의는 창작 예정인 장편소설의 기획 의도와 시놉시스 및 도입부에 해당하는 분량의 초고가 포함된 심의서류를 심의위원들이 각자 사전 검토한 뒤, 4월 1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진행된 대면 회의를 통해 선정 대상을 최종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심의 기준은 다른 요소 없이 작품의 예술성만을 100%의 가중치로 평가하되, 구체적으로는 주제·의도·서사 구조의 참신성과 흥미로움/재출자료가 창작 의도에 충실한 정도/예상되는 최종 결과물의 예술적 완성도/문학적 시도나 실험 면에서의 새로움을 그 주된 평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심의서류에 포함된 도입부 초고가 본 사업에서 지정한 최소한의 분량 기준(원고지 200매 내외)에 현저히 미달하였다면, 그 점 또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에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올해 지원사업의 심의 대상이 된 서류 550건 가운데, 본 심의에서는 유형② 심의 대상 서류의 약 50%인 178건을 심의위원 5인이 검토하여 총 21건을 1차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소재의 대중성이나 장래의 상업적 가능성 등보다도 소설 자체의 완성도와 시대적 유의미함, 예술적 시도의 참신함을 한층 높이 평가하는 것이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데에 큰 이견 없이 합의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SF·역사·판타지·미스터리 및 청소년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장편소설을 창작하려는 시도가 특히 눈에 띄었던 만큼, 심의위원들 또한 문학 보편의 예술성과 각 장르의 고유한 서사적 매력이 겸비된 장편소설 기획안은 과연 무엇일지를 두고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논의 끝에 선정된 서류 21건은 저마다 어떤 형태로든 뚜렷한 장점을 갖춘 장편소설로 완성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 장편소설 창작을 시도하는 작가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심의위원들로서는 가장 기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소재와 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가 시장에 범람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한 글자 한 글자에 심혈을 기울여 책 한 권 가득 소설을 써내고자 하는 많은 작가들의 의지와 열망에, 그러한 소설 각각이 조금씩이나마 분명히 넓혀 갈 한국문학의 다채로운 지평을 위해, 본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

## ■ 2026년도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 1차 심의(유형②-B)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 1차 심의 유형②-B
- 회의일시 : 2026년 4월 1일(수), 17:00~18: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미정, 박혜진, 안보운, 오현중, 정용준

본 사업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작가들의 장편소설 창작을 지원함으로써 한국문학의 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편소설 발간 이력이 있는 기성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유형②의 경우, 355편의 원고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50%에 해당하는 177편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사위원단은 급변하는 창작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설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심사에 임했습니다. 투고된 수많은 원고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심사위원단이 공통적으로 느낀 소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이번 응모작에서 가장 두드러진 흐름은 역사물과 SF 장르의 눈에 띄는 증가였습니다. 다양한 시대와 실존 인물을 다룬 역사물이 풍성하게 접수된 가운데, 심사위원단은 자연스럽게 ‘역사를 소설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화두로 삼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상상력과 소설적 진실이 만나는 지점, 즉 기록의 재현을 넘어 인물과 사건에 문학적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 역사소설의 핵심 과제임을 이번 심사를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물 형상화의 깊이는 장르를 불문하고 이번 심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주제였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서사의 구조적 완성도와 함께 그 구조를 채우는 인물의 내면과 감정선에 주목했습니다. 탄탄한 서사의 골격과 인물의 삶이 어우러질 때 독자의 몰입과 공감이 깊어진다는 점에서 인물 형상화는 앞으로의 창작에서도 핵심적인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최근의 출판 트렌드와 독자의 기호를 세심하게 반영한 작품들이 다수 접수된 것도 이번 공모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심사위원단은 그러한 기획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작가 고유의 문제의식과 작가 정신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트렌드와 작가 정신이 균형 있게 어우러질 때 문학적 성취와 독자와의 소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읽고 쓰기와 관련한 감각들이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변치 않는 전제일 것입니다.

이번 심사는 한국 문학의 저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장편소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집필에 매진해주신 모든 작가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최종 선정된 작품들이 치밀한 보완과 집필 과정을 거쳐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 역시 이번 심사 과정이 창작의 여정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집필 활동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심사위원 일동

## ■ 2026년도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 2차(최종)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 2차(최종) 심의
- 회의일시 : 2026년 4월 16일(목), 16:00~17: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구효서, 김혜정, 박인성, 조연주, 편혜영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 사업은 2026년부터 신설된 사업으로, 문학적 역량이 우수한 작가의 장편소설 창작을 집중 지원하여 대한민국 장편소설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편소설 창작은 창작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에, 사전에 출간계약을 맺거나 연재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필 시도 자체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편소설 창작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자질을 갖춘 창작자의 안정된 장편소설 집필과 출간을 지원하고자 창작지원금 및 취재비뿐만 아니라, 집필 공간 및 프로모션까지 지원하는 큰 사업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첫 장편소설 창작지원을 수행하는 유형①과 장편소설 출간 경험자 창작지원을 수행하는 유형②를 구분하여 지원 및 심의를 수행하였습니다. 전체 심의 과정은 1차와 2차 심사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차는 무기명으로 시놉시스와 초고만을 보고 작품의 예술성을 100%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차에서는 기명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 작품의 예술성(30%) △ 신청주체의 창작역량(40%) △ 집필계획의 실현가능성(10%)에 가중치를 두어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개별 위원들은 사전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대면 심의를 거쳐서 충분한 논의 및 합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지원작을 결정하였습니다.

1차 심의에서는 최종 지원작의 3배수 가량을 선발하였으며, 2차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형①에서 7작품, 유형②에서 13작품, 총 20작품을 지원작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선발작들은 전체적으로 각 기준에 맞춘 제출 서류의 우수함만큼이나, 제출작 시놉시스와 초고가 두루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장편소설의 창작 집필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사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큰 이견 없이 지원작의 선정을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선정작들은 한정된 초고 내용만이 아니라, 시놉시스를 통해서 충분히 완성된 작품에 대한 구성적인 이해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로서의 성취나 개성을 충분히 전달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작들 가운데는 형식적 실험을 수행하는 작품을 포함하여 장르소설, 청소년소설 등이 포함되어 장편소설이 가진 가능성의 다양함을 두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설정이나 분위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야기적인 구성의 측면에서 장편소설보다는 단편소설에 적합한 이야기들은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장편소설로서의 무게감이 없다면 장르적 요소를 활용한 작품들에 있어서 오히려 장르의 전형성이 다소간의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업이 그간의 지원사업과 차별화되는 형태의 안정적인 창작지원을 수행하는 만큼 미리 준비된 작품들이 가진 깊이감은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상언어와 문자언어의 차이점처럼 소재와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장편소설로서의 구성적 측면, 그리고 치밀한 문장에 대한 고려가 향후 사업에서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고 분량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이 효과적으로 발생하는 작품들이 있었던 반면에, 초고가 전체 이야기의 발단에 머무름에도 시놉시스가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향후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놉시스가 가지는 선명한 전체 이야기에 대한 장악과 장편소설 집필 역량에 대한 가능성 역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첫 사업에 선정된 작가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동시에, 이

사업이 가진 여러 지원 혜택에 대하여 남다른 책임감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이번 선정작들이 향후 한국 문학과 장편소설의 새로운 성취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의회원 일동